

제13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11. 09. [월] 09:30 ~ 13:00
장 소	전주시청 4층, 회의실
참 석 자	위원장 등 8명 [재적인원 11명 중 8명 참석]
주요내용	○ 공론조사 설문안 확정 ○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사전교육 및 토론회 운영계획 논의
회의결과	○ 공론조사 설문조사(안) 확정 - 지역, 성별, 연령,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 우선 고려사항 등 ○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사전교육 및 토론회 운영 계획 논의 - 시민참여단 사전교육 ▸ 일 정 : 2020. 12. 12.(토) 14:00~ 17:00 ▸ 장 소 : 전주시청 강당 ▸ 주요내용 : 공론화 경과보고, 시나리오워크숍 결과 공유, 질의응답 등 - 시민참여단 속의 토론회 ▸ 일 정 : 2020. 12. 19.(토) 09:30~ 18:00 ▸ 장 소 : 미정 ▸ 주요내용 : 1차 조사, 의제 관련 분임토의, 질의응답, 2차 조사 등 ※ 시나리오워크숍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2020. 11. 09.[월])

제13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진행사항 보고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제13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잠시 뒤 11시부터 기자간담회 실시 예정이라 자리 배치 등이 필요해서, 10시 40분까지만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 먼저 시에서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을 보시고요. 시정 홈페이지 특별한 건이 있습니까?
전주시 관계자	- 특별한 사항보다는 지금 마지막 안 하나가 복합 개발 위주보다는 저층으로 아파트를 짓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 그동안 올라온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의견으로 올라왔네요.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견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의견사항을 정리해드리오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나리오워크숍 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1, 2, 3 정리가 연관 검토상 장점, 단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혹시 한번 살펴보고 오해가 있을 만한 워딩, 단어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정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오늘 중요한 게 공론조사 설문안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론조사 설문안을 심의 안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배포 내용을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 공론조사 설문안 확정

용역 수행기관	-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논의를 거쳐서 수정한 내용을 배포해드렸습니다. -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 전주시민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 조사를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표본설계를 좀 약간 간략하게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완산구랑 덕진구로 나뉘고요. 대한방직 부지가 있는 효자5동을 별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1500명을 표본설계를 하게 되면 인구 비례로 따지게 되면 효자5동이 한 80명 정도밖에 표집이 안 됩니다. -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가중치를 뒤서 1500명의 10%, 150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사전 할당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진행할까 합니다. - 남, 여 나을 거고 연령대도 너무 나뉘놓으면 나중에 조사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 18세 이상부터 해서 39세까지 그리고 40, 50대
---------	---

	60대 이상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하고 나이는 다 받을 겁니다. - 일단 받는데 구간만 그렇게 설정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	- 완산구, 효자5동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원래 표본설계를 할 때 완산구 그 인구 비례로 해서 덕진구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 그리고 아까 효자5동에서 80명 정도 나오거든요. 한 80명 정도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어요.
용역 수행기관	- 효자1동에서 5동을 합치면 그것보다는 아주 많습니다.
○○○ 위원	- 효자 1~4동을 합치면 효자 5동보다 많겠죠. - 효자 1~4동, 효자 5동을 완산구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용역 수행기관	- 그러면 가중치 반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동의하십니까? 그냥 지금 안은 효자5동을 별도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으로 볼 때는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완산구에 합쳐서 80명 정도면 충분하다. 인원으로 볼 때 그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 위원	- 나중에 이 분들이 120명 안에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들어가나요?
○○○ 위원	-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용역 수행기관	- 나중에 저희가 할당을 할 때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120명에 반드시 효자5동 분들이 일정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1500명이에요. 1500에 80명 정도 되면, 120명 정도 되면은 6명 정도 되겠네요.
○○○ 위원	- 대여섯 명보다는 더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	- 그런데 효자5동 사람들의 의견을 과도하게 반영해서 의견을 받는 거라고 하면은 그쪽 사람들의 의견을 나중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 1500명에 80명, 120명 정도면 어느 정도 되죠? 한 6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6명 정도인데 지금 의견들 주시면 조금 더 8명이나 이렇게 좀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시고 6명 정도로 더 의견을 받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	- 이해관계자 해석범위가 지역으로 놓고 보면 부동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되지만, 또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면 예를 들어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이해관계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가중치를 막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령대, 성별, 지역별 이게 완만하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지금 제가 느끼기에 교통 문제는 모든 분들이 아주 강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아니라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동의한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용역 수행기관	- 첫 번째 문항은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사실만 물을 겁니다. - 두 번째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말하는 시나리오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인데 밑에 내용들이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나왔던 시나리오 A, B, C 안에 대한 키워드 중심의 뭐 중심 시설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적어놓았습니다. - 시나리오 세 가지를 질문할 때는 순서를 바꿔가면서 진행할 거고요. - 이 사람들이 시나리오워크숍에 대한 내용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만 물을 겁니다. - 키워드 중심으로 판단할 겁니다.
○○○ 위원	- Q1은 지난번에 결정되었고, Q2는 지식기반 등 산업시설 중심업무적 성격도 강했거든요. 그래서 금융, IT, 지식 기반 등 산업 업무지원, 업무라는 단어를 하나 넣으면 어떨까 싶었고 - 두 번째는 상업, 관광, 문화 관광 이런 쪽도 강했어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씩 첨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에는 보니까 내용상 업무 지원 이런 선정도 강했거든요. -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 그다음에 문화관광 이런 쪽이었습시다. 그래서 상업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에 들어가면 어떠겠습니까? - 세 번째는 대규모 공원 중심이기는 한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조금 복합적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생태공원, 문화복합체육시설로 간 공공성 중심의 이런 시설 위주로 한 시나리오가 어떨까요? - 왜냐하면 세 번째는 이것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상업으로의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주었거든요. 조금 워딩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	- 먼저 산업이라는 것이 불확정적인 성격의 단어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어떤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산업시설 중심, 상업 중심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는 상업 시설하면서 아파트 같은 것도 거기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주 거도 같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중심도 있지만 부차적으로 산업과 그 일부를 이렇게 해서 구체성을 조금 더 띄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감을 잡지 않을까요

위원장	-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 위원	- Q2문항에 아파트 단지, 주거 관련 된 것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 설문을 묻기 전에 모두가 주거 기능은 들어간다고 전제하고 한번 넣자 그 말씀이시죠.
○○○ 위원	- 1번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뭐 분석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죠? 그냥 도입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모르고 있다가 많이 나오게 되면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2번 문항으로 진행하죠. - 그런 진행하기 전에 대한방직 부지는 현 도청 옆에 있는 몇만 평 정도 되는 공간이다. 이런 정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 '옛 대한민국 부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전주시죠. - '현재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 그다음에 뒤에는요. '다양한 미래상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걸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하는 다음 중 무엇을 중심으로 이곳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쉽게 해 주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활용보다는 개발이란 단어를 쓰고, - 그리고 1번 금융, IT 2번, 아까 생태공원 상권 1, 2, 3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견 나오는 대로.
위원장	-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대한방직 부지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도 거기에 보니까는 저희들이 단어 선택 시 중복 언어가 들어가면 안 좋거든요. - 그래서 뒤에 '미래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분을 빼면 중복 검토가 아닐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또 뒤에도 예를 들면 앞서 우리 ○○○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으로 굳이 한다면 '주거기능 외에 어떤 기능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저희 시설을 그 뒤에 물음도 시설로 하지 말고 기능으로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면 우리 ○○○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가고 뒤에 1, 2, 3, 4시설이 아닌 기능으로 할 때도 예를 들면 어느 단어를 먼저 쓰는 것이 더 중요하냐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1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 및 첨단산업 중심의 기능' 중심기능이라든지 - 그리고 뒤에는 '상업 및 문화관광 중심의 기능' -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복합체육시설을 포함한 생태공원 빼고요, '문화관광복합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공원 등 공공성 위주의 기능' 이렇게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 공론화 설문조사의 가장 핵심은 시민 참여단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기왕이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뭔가 하나 아이টে를 얻어보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분포에 조사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본을 좀 줄여서라도 그 생각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 그러니까 2번은 아까 나온 얘기 들어보면 산업, 상업, 공원 이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동의를 해서 그냥 워딩으로 하면 1번은 '지식 기반 등 업무지원 및 산업 시설 중심'이 이게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센터 등 관광 및 상업시설 중심' 그다음에 3번은 '포함한 대규모 공공개발 중심' 이렇게 가고요. -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주거 용지가 깔리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산업시설만 들어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앞부분의 질문에 답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키하는 현재 전주시는 현 도청 옆 7만평 대한 방직 부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써주고요. - 두 번째는, 키하는 다음 중 현재 주거 용지이며 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여기가 주거 용지고 공업용지구나 많은 부분들이 언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에 그걸 담고 항목은 한 단어씩 추가해서 그림들을 좀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 위원	- 앞에 주거 용지이며 공업지역인 이 단어 하나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위원	- 저는 두 가지인데요. 성원을 빨리 해줘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야기했듯이 위치, 장소 이거는 서부 신시가지 도청 옆 옛 대한방직 부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 두 번째 저번에 이게 미래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성적이라면 약간 정성 하고 어떤 다르게 가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 그런데 약간 두 가지를 섞자면 예를 들면 Q2에 1번 같은 경우 미래 성장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미래상 부분에 키워드를 원래 있던 키워드를 살짝 여기에 형용사처럼 붙여주는 게 이 시설의 취지를 설명해줄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백화점, 호텔, 컨벤션 상업시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사실은 복합문화관광 상업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상 단어 좀 차용 해 놓으면 설명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 미래상의 단어를 좀 차용하자.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차후로 하고 세 번째 Q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3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수행기관	- 일단 일정을 알려드린 것은 시민 참여를 모집하고 있다는 공지를 하는 거고요. 12월 12일 오후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3시간 좀 안 되게 2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진행하고, 19일은 하루 정도 아침부터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향을 묻고 있습니다. - 사례비는 아까 전주시에서 1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0만원으로 사례비로 드릴 예정이라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 Q3에 대해서는 별도라는 말 빼고, 참여 사례비 이렇게 10만 원으로 수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 그것을 합쳐서 지금 있는 자체 시나리오가 일단 참여자들이 원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다 빼버리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 오후, 그다음에 19일 하루 동안 교육 및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키하께서는 이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2일과 19일 날짜를 명확히 해줘야 지금 참여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이분들이? 오전하고 19일은 하루.
○○○ 위원	- 토요일도 넣어주세요.
○○○ 위원	- 예. 토요일. 토요일 오전, 하루 동안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 그러면 키하는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추진하는 옛 대한방직 관련 시민참여단을 모집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두 차례 걸쳐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고치는 걸로 하죠.
○○○ 위원	- 그다음에 1, 2, 3번, 3번이 됩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거 나중에 애매해서 오히려 용역 수행기관에서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용역 수행기관	- 그러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이러면 나중에 120명을 채워야 할텐데, 이 인원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봐도 이게 참여할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용역 수행기관	- 저희가 120명을 모았는데 갑자기 못 오는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로 그런 사람들도 필요할거 같아서요.
○○○ 위원	- 용역 수행기관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떤 예비 마련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알아서 하니까 120명을 채우는 거니까요.
위원장	- 네.
용역 수행기관	- 4번은 참여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연락을 드리게 되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끝으로는 DQ 문항에서는 직업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이분들에게 무슨 방법으로 합니까?
용역 수행기관	- 이메일 아니면 저희가 핸드폰, 전화 이렇게 연락드릴 겁니다. 원래 이메일을 다 받으면 좋은데 이메일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위원장	- 그때 7:3으로 한다고 그랬죠? 유무선이 7:3. 그거 지켜주시고
○○○ 위원	- 선정되시면 그렇게 돼 있는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거기서 선정을 한다고라고, 그래야 나중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사전에. - 마지막 끝으로 통계 처리 여기에 약간 개인적인 건데, 사회복지, 사회 공익적 내지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어디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 위원	- 이게 조사하면 목사님 군인은 어디 들어가지 않거든요. 어디에 못 들어가는데요. 그런 분들이 조사를 할 때는 기타 처리를 하는데요.
○○○ 위원	- 그리고 Q3를 보시면 이거 분명히 물어봐요. 한 번만 참여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 2회는 키하는 공론화 토론회에 뒷부분으로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 네. 그러면 그냥 그거는 기타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사업을 먼저 써줘요. 사업 및 자영업 이렇게 해주면 자영업하는 사람도 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함이 돼요.
○○○ 위원	- 여기에 직업 분류 코드는 사실상 위에 우리가 부지 활용 방식의 의견 공포를 직업군으로 본 거기 때문에 참 큰 의미가 없는데 나중에 120명 샘플에 대해서는 혹시나 직업군, 참여단한테 직업군을 좀 더 세분화해서 어떤 사람 참여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 예를 들면 제가 NGO를 이렇게 구체화하자는 건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층은 NGO도 중요하게 관련 있는 분들이 또 하기 때문에 참여층에 대한 직업은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 그러면 기타 말고 9에 NGO라고 하면 됩니까? 뭐라고 하면 됩니까.
○○○ 위원	- 이걸 이대로 가되, 나중에 120명 토론회에서 혹시나 직업군을 재조사 분류를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있던 그때는 세분화하는게 좋겠다.

#. 시민참여단 토론회 ROAD MAP 논의

위원장	- 지금 고친 것을 이곳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 11월 11일 지금 할 거죠? 그러니까 내일모레입니다. 내일 모레니까는 이거 바로 고쳐서 오늘 오후에 점심 식사하시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잠깐 논의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번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되겠죠? -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옛 대한방직 부지가 있는 공론화 용역 시민참여단 프로그램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	---

○○○ 위원	- 위원님들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기자회견들 간담회 설명회 자료를 보니까 너무 내용이 없어서요. 저는 이거를 지금 보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3장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이 끝에 공론화에 시나리오만 이렇게 세 개 했는데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여기 진행 상황 보고에 나와 있는 3쪽짜리 시나리오 연관 검토사항 장점 단점까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 이거는 별도로 해서 나눠주시죠. 그런데 그 워딩은 약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대규모 공원 중심, 아까 여기에 공공개발 그런 식으로 워딩을 바꿔서. 아까 우리 설문조사 할 때 얘기했던 그 단어를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아까 업무 및 첨단산업 기능 중심이었고, 두 번째는 문화관광 및 상업 기능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생태공원 빼고 문화복합지역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문화지역시설이네요.
○○○ 위원	- 그러면 공원 개발 중심으로 가야죠. 생태공원이 앞에 들어가면 뒤를 공공개발이라고 하면 되고요. 앞에 생태공원을 뺀 거면 공원을 넣어줘야 합니다.
위원장	- 그럼 대규모를 빼고 생태공원이 포함된 공공기능 중심. 아니면 대규모 생태공원이라고 해도 되고요.
○○○ 위원	- 대규모는 원래 안에 있었어요. 대규모 생태공원 이렇게 해서 공공기능 중심.
위원장	- 대규모 생태공원 및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기능 중심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자, 로드맵 설명해 주시죠.
용역 수행기관	- 먼저, 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참석자는 120명이고, 그리고 부분 분임토의를 위해서 12개 조로 나눌 예정입니다. 일정이 아까 말씀했듯이 12일과 19일. 12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위원장	- 좋습니다. 그런데 왜 12개 조로 나누죠?
용역 수행기관	- 한꺼번에 모든 의견을 들을 수가 없어서 모더레이터가 주관하는 분임토의와 전체토의를 반복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제 말은 12개라고 하는, 10명씩 12개라는 뜻입니까? 10명이 특별한 의미는 없죠? 소그룹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용역 수행기관	- 의사소통 가능한 범위는 10명이 넘어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서 10명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용역 수행기관	- 그리고 지금 장소는 물색 중에 있고 참여자 숙의 토론은 일단 지난번 말씀드렸던 웨딩홀에서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그 참석자를, 120명을 전체로 모아놓고 한 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2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용역 수행기관	- 기존에 나왔던 시나리오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 안에서 뭔가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조금 이야기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기도 하고, 질문 안건을 만들기도 하고.
위원장	- 제가 왜 질문을 하나 그러면 10명씩 12개 소그룹으로 나뉘야 할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지금 3개의 시나리오잖아요. 3개 시나리오를 10명씩 12그룹으로 나누어서 할 의미가 있나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그러니깐 한 그룹이 10명씩 3개의 시나리오를 다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한다는 거죠?
용역 수행기관	- 네 맞습니다.
위원장	- 그럼 이게 10명씩 12그룹. 의미를 잘 몰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용역 수행기관	- 그래서 120명을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의견 취합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분임토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전체 토의를 통해서 의견 교환을 한번하고.
위원장	- 편의상 그런 것 같은데 12개 그룹이 너무 많다. 10개 그룹이라도 줄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	- 저는 12개로 나누는 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묻거나 그러면 이야기할 기회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사도 좀 하시고, 자기 의견들을 모더레이터가 설명도 하고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1차는 괜찮은 것 같고요.
위원장	- 두 번째 이야기해주세요. 토론회 세부 일정 내용 공개.
용역 수행기관	- 세부 일정 공개는 일단 자료집은 지금 시나리오 워크숍 자료집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집을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여론조사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진행규칙은 아마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시민참여단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은 12월 12일입니다. 저희가 자료집은 그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난번에도 시나리오워크숍에서도 위촉장을 전달드렸는데 가능하시다면 위촉장 전달이 가능한지 이것은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숙의 과정을 그렇게 오래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일에 받게 되면 저희가 일주일 정도의 보시고 질문할 사항들은 밴드를 만들던 온라인에 소통 공간을 만들어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하는 활동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	- 뒤에 자료집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전문가 검수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배포하기 전에 이 자료집은 반드시 언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료집이?
용역 수행기관	-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 사이에 만들어서 그다음 일주일 동안 보정을 거쳐서 12일 날 오시면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집을 만들어서 바로 가급적 좀 빨리 만들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면 또 한 번 논의할 기회가 있어서 이 정도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또 만드는데 의견 주실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용역 수행기관	- 일단 세부 일정은 조금 변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진행 요원을 지금 컨택하고 있어서 일단 구두상으로 하기로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요원들, 모더레이터들이 시간이 조금 일정상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진행 부분을 컨택해서 사회자도 결정이 돼야 하고, 그래서 OT 기간에 오셔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그때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석하셨던 대표 참석자 6분도 오셔서 시나리오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위원	- 그렇죠. 그건 아는데 이번에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하였던 분들이 이어서 하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해서 좋을 텐데.
용역 수행기관	- 일정이 좀 안 맞는다고 말씀하셔서요.
위원장	- 알겠습니다.
○○○ 위원	- 그리고 시나리오 워크숍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세 가지로 딱 도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참여단의 목표는 뭐니까? 이 세 가지 안에 대한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해서 선호도를 지금 파악하는 겁니까?
용역 수행기관	- 나중에 3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권고안을 결정하는 겁니다.
○○○ 위원	- 그러면 이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도출된 세 가지 안에 대한 조정이나 변경은 불가하고 그거에 대한 선호도를 120명이 어떻게 보는가? - 그다음에 그 안을 1500명 조사에서도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 그걸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죠.

용역 수행기관	- 1500명 조사에서는 상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어떤 기능 중심이냐, 그냥 표집에 조금 동등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게 시민참여단 120명을 통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선호되고 있는지 여기에서도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다는 의견을 토는 비슷하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한 가지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위원	- 이걸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요. 선호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시민들이 여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중점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건 좋지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중에 단 하나만 그래서 보고의 형태나 내용을 결정하는 이 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결과 도출을 하나의 안으로 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토론 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 저도 ○○○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120명의 시민 참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인 우선순위 정도는 파악할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1순위가 이것이니 이것으로서 전주시장님한테 권고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우선순위 정도에 대해서는 논의는 하겠지만 저도 그중에 이게 제일 높으니 이것으로 하시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을 하고 진행할 시간이 14차, 15차 회의가 필요하니까 그때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진행하는 측에서도 너무 하나의 안으로 몰아가거나 하나의 안을 만들려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모더레이터들께 대략적인 분위기는 파악해도 이게 이렇게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 그럼, 제13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